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시 : 2008. 7. 17

나. 제안자 : 송원기의원 등 26인

다. 회부일자 : 2008. 7. 17

다. 상정 및 심사·의결

○ 상 정 : 2008. 7. 18(제1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의 결 : 2008. 7. 18(제1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희 의원)

□ 주 문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제안이유

○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인 『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만행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임.

○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8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밝힘.

3.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제284호
결의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발의년월일 : 2008. 7. 17

발 의 자 : 송원기 의원 등 26인

1. 주 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2. 발의이유

-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인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만행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임.
-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8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밝힘.

※ 따로붙임 : 결의문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문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무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만행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이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원칙인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제2의 주권 침탈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87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 I. 우리의 강토 독도는 동해의 청정한 물결에 스며있는 반만년 역사의 물줄기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자존심이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 I. 일본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I.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라.

2008년 7월 18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